

이슈 브리핑

●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EV) 에티오피아, 내연기관 수입 금지 추진
- (탄소배출) 영국, '22년 탄소배출 저감에 성공했으나 수송은 배출량 증가
- (탄소중립) Lamborghini, '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% 저감 추진

●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자율주행) Waymo, 로보택시 사고 후 사상 첫 리콜 발표
- (자율주행) 캘리포니아 주의원들, 엄격한 자율주행 차량 규제 촉구
- (SW) 美, 데이터 보안 우려로 中 스마트카 및 부품 수입 제한 고려

●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ZF) EV 수요 둔화에 따른 부품 공장 유연성 강화
- (Panasonic–Novonix)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 파트너십 체결
- (Mobileye–Project3 Mobility) 도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발표

친환경차 / 탄소중립

◆ (EV) 에티오피아, 내연기관 수입 금지 추진

- 알레무 시메 에티오피아 교통운수부 장관은 정부가 앞으로 전기차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은 수입을 불허할 방침을 시사함
 - *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제2의 인구대국으로, 2010년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(9.5%, IMF 기준)
- 관련하여 시메 장관은 에티오피아가 '23년 휘발유 및 디젤 연료 수입에 €60억(약 8,57조원)을 썼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에는 자국의 외환 부족으로 인한 연료 수입 부담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함
 - * 한편 정부는 10년 경제 개발 계획('21~'30)에 따라 '30년까지 전기차 152,800대를 도입할 계획으로(현재 전체 차량 120만대 중 7,200대가량),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공개되지 않음

※ Techpoint Africa('24.2.8.) <https://techpoint.africa/2024/02/08/ethiopia-bans-importation-fuel-powered-cars/>

◆ (탄소배출) 영국, '22년 탄소배출 저감에 성공했으나 수송부문은 배출량 증가

-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은 '22년 총 4.06억 톤의 탄소를 배출해 전년 대비 3.5% ('90년 대비 50%) 저감에 성공했으나 수송부문(1.13억 톤)은 배출량이 2% 증가함
 - * 수송은 주요 부문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로, 총 배출량 중 28%가량의 비중 차지
- 정부에 의하면 '22년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 증가는 '20~'21년 코로나 관련 이동 제한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보이며, 코로나 직전인 '19년과 '22년을 비교할 경우 수송부문 배출량은 10% 감소함
 - * The Guardian('24.2.6.) <https://www.theguardian.com/environment/2024/feb/06/uk-s-emissions-fell-slightly-in-2022-but-trasport-and-homes-still-biggest-emitters>

◆ (탄소중립) Lamborghini, '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% 저감 추진

- Lamborghini의 'Direzione Cor Tauri' 프로그램에 따르면 당시는 '30년까지 전 벨류체인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'21년 대비 차량 1대당 40%를 저감할 계획
 - * 당시는 '21년 해당 프로그램을 공개한 후 '23년 Revuelto를 출시하는 등 PHEV를 선보인 바 있으며 '28년에는 첫 BEV인 Lanzador 출시 예정
- 관련하여 당시는 공급사의 환경, 사회 및 거버넌스 표준 준수를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시스템인 S-Rating을 도입하였으며, 완성차 수송 과정에서 철도의 비중을 4%→35%로 늘리고 항공 비중을 18%→1%로 낮추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* Lamborghini('24.1.30.) <https://media.lamborghini.com/English/latest-news/automobili-lamborghini-renews-its-pact-with-future-generations-as-part-of-its-direzione-cor-tauri-/s/9d75d613-afcd-4db6-ade5-06d90ecf9566>

◆ (자율주행) Waymo, 로보택시 사고 후 사상 첫 리콜 발표

- '23.12.11. 피닉스에서 Waymo 로보택시가 후방 견인되는 픽업트럭과 충돌했지만 견인차는 멈추지 않았고, 몇 분 뒤 다른 Waymo 로보택시와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 이후 리콜 실시
 - * Waymo는 당시 로보택시 2대 모두 승객을 태우고 있지 않았으며, 경미한 차량 손상이 발생하고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힘
 - Waymo는 로보택시가 견인되는 차량의 향후 움직임을 잘못 예측한 것으로 판단하고, 수정안을 개발 및 검증 후 '23.12.20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시작함
- ※ The Wall Street Journal('24.2.14.) https://www.wsj.com/business/autos/waymo-issues-recall-self-driving-cars-crashes-caf17ebe?mod=autos_news_article_pos1

◆ (자율주행) 캘리포니아 주의원들, 엄격한 자율주행 차량 규제 촉구

-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자율주행차 허가 및 자율주행차 관련 법 집행에 대한 통제권을 도시에 부여하는 법안*과 상업용 트럭을 포함한 4,536kg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숙련된 운전자가 탑승해야한다는 법안** 발의
 - * 현재는 주 규제 당국만 자율주행차 허가를 통제함
 - ** 해당 법안의 이전 버전을 주의원들이 통과시켰지만 Gavin Newsom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 하였고, 지난 Cruise 사고를 계기로 '23.2.8. 주의회에 재상정됨
- ※ Reuters('24.2.13.) <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autos-transportation/california-lawmakers-call-stricter-regulation-autonomous-vehicles-2024-02-13/>

◆ (SW) 美, 데이터 보안 우려로 中 스마트카 및 부품 수입 제한 고려

- Bloomberg는 Biden 행정부는 데이터 보안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스마트카* 및 관련 부품 수입 제한을 고려하고 있으며, 해당 조치는 중국 제조업체 차량 및 부품이 제 3국을 통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조립 위치와 상관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
 - * 스마트카는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일컬으며, 스마트카에 인터넷 연결 모뎀이 장착되어 있어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음
 - ** 위 조치는 미국이 데이터에 대해 우려하는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, 한편 당국은 당초 Trump가 부과했던 중국 전기차에 대한 27.5% 관세 조정 방안을 검토 중임
- ※ Bloomberg('24.2.9.)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4-02-09/biden-is-looking-beyond-tariffs-to-keep-china-smart-cars-out-of-the-us>

◆ (ZF) EV 수요 둔화에 따른 부품 공장 유연성 강화

- ZF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EV 판매 문화로 인한 일정 변경 등에 따라 ICE, EV, HEV 부품 간 빠른 생산 전환을 통한 유연한 제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변속기 공장에 5억 달러 투자 발표
 - * 이번 투자는 '23년 말 상용 MHEV, PHEV의 변속기 생산 전환 가능 시설에 2억 달러 투자의 추가 투자임
- 동사는 이번 투자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 인센티브를 모색하고 있으며, 이사회 멤버 스테판 폰 슈크만은 부품 약 80%를 지역에서 조달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 목표를 밝힘
 - * Automotive News('24.2.11.) <https://www.autonews.com/suppliers/zf-wants-more-flexible-factories-ev-programs-stall>

◆ (Panasonic-Novonix) EV 배터리 소재 공급 파트너십 체결

- Panasonic Energy는 EV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인조흑연 조달을 위해, 호주 배터리 소재 및 기술업체 Novonix와 Off-take 계약*을 체결하였으며, '25년부터 4년간 Panasonic Energy 미국 EV 배터리 공장에 인조흑연 1만 톤 이상 공급 예정
 - * Novonix가 계약된 생산 일정을 충족하지 못하면, Panasonic은 최대 20% 구매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
- Panasonic Energy는 '31년까지 EV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 '22년 대비 50% 감축을 목표하고 있으며, 이번 계약을 통해 Novonix의 인조흑연 기술* 활용과 북미지역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기속화 기대
 - * Novonix의 'GX-23' 인조음극흑연의 전과정평가(LCA) 결과, 중국 내몽고에서 생산된 기존 음극등급인조흑연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(GWP)가 60%, 중국 헤이룽장성 음극등급천연흑연에 비해 30% 감소
 - * Panasonic('24.2.9.) <https://na.panasonic.com/us/news/panasonic-energy-partners-novonix-sustainable-synthetic-graphite-supply-ev-battery-production>
 - * Novonix('24.2.9.) <https://www.novonixgroup.com/panasonic-energy-and-novonix-sign-binding-off-take-agreement/>

◆ (Mobileye-Project3 Mobility) 도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협력 발표

- 크로아티아 도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기업 Project 3 Mobility(P3)*의 전기차 플랫폼에 Mobileye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여,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협력
 - * 완전자율주행 전기차, 전문 인프라,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
 - P3는 EU, UK, 걸프협력회의(GCC)의 9개 도시에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 진행 및 30개 도시 추가 예정이며, 크로아티아 내 자율주행차 대규모 생산 시설 설립 계획
 - * P3는 '24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Mobileye 자율주행 솔루션 테스트를 시작하여, '26년 동 지역에서 첫 번째 P3 도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예정
- ※ Mobileye('24.2.13.) <https://www.mobileye.com/news/mobileye-and-project-3-mobility-announce-collaboration-for-scalable-urban-autonomous-mobility-project/>